

어린이 책꽂이



▲내 토끼가 또 사라졌어! =애지중지하던 장난감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의 심리와 그 이후 성장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뉴욕에 사는 '트리시'는 부모님과 함께 네덜란드에 사는 할아버지·할머니를 만나러 간다. 트리시는 아끼는 토끼 인형을 비행기에 놓고 왔다는 걸 알고는 내내 토끼 생각에 울적해지는데... 〈살림어린이·1만원〉



▲평전도 모르는 남국 이야기 =환경과 과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환씨가 펴낸 환경 교양서. 저자가 직접 남극에 가서 체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과학기지의 활동과 빙하의 역사, 펭귄과 물범 등 남극에 사는 생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소개해 놓았다. 〈한겨레어린이·1만원〉



▲파파의 일기 =엄마의 재혼으로 동갑내기 '송화'와 자매가 된 '아주'의 이야기를 그린 동화. 아주는 송화와 사이가 좋은 엄마를 보며 엄마를 빼앗긴 듯한 묘한 소외감과 송화에 대한 질투를 느낀다. 부모들의 재혼을 통해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는 아이들의 심리와 이를 극복하는 따뜻한 가족애를 그렸다. 〈현암사·1만원〉



▲줍쌀 반 뒷박 =사람마다 정해진 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남들을 도와주면 뜻하지 않은 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 복이 없다고 한탄하던 한 총각이 부처님에게 따지려 서천서역국으로 여행을 떠난다. 부처님을 만난 총각은 자신의 복이 '줍쌀 반 뒷박'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하지만... 〈사계절·9800원〉



▲도서관 고양이 듀이 =세계에 '듀이' 열풍을 불러일으킨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림책. 도서관 사서 비키는 도서관 반납함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를 발견해 따뜻한 물로 씻기고 '듀이'라는 이름을 지어 준다. 듀이는 도서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책 카트를 타고 돌아다니는 등 차츰 '도서관 고양이'가 되어간다. 〈웅진주니어·1만원〉



▲자연에서 소리로 배우는 훈민정음 이야기 =첫 권 '훈민정음 그대'에 이어 펴낸 두 번째 아기 한글 익힘책.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의 설명 방식을 따라 한글의 중성(가운대 소리)을 설명했다. 조선시대의 풍속화와 민화에서 나온 소, 강아지, 고양이, 응 등 동물들의 그림을 넣어 친근하게 구성했다. 〈책과함께어린이·9800원〉



▲눈이 즐거운 물리 =중학교 과학 교사 김상협씨가 쓴 어린이용 과학 학습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이용해 물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재미있게 풀어 설명했다. 찜질방 수건에 있는 도난 방지 태그를 갈로 잘라보는 등 기발한 실험 결과들을 보여주며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물리를 소개한다. 〈사인언스북스·1만5000원〉

▲열두 살, 이루다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열두 살 소년·소녀들의 고민과 성장을 그린 동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책도령은 왜 지옥에 갔을까?'의 김윤희 작가의 신작이다. 초등학교 5학년 해바라기 반 7명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계에 있는 아이들의 첫 사랑과 우정 등을 담았다. 〈해와나무·9800원〉

역사인물 인터뷰

최용범 지음



볼로초, 아방궁, 분서경 유로 인식되는 진시황은 잔혹한 폭군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지만 오늘날

엔 "난세의 위대한 리더이자 역사의 건설자"로 재평가되며 중국사 최고의 황제로까지 꼽히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인물은 일반적으로 시공간이라는 매트릭스 안에서 굴절되고 변형돼 현재에 투영된다. '하룻밤의 읽는 한국사'로 이름을 알린 최용범씨는 '역사인물 인터뷰 : 세계사인물 다시 보기, 진시황에서 이토 히로부미까지'에서 각인된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선과 방법으로 세계사 속

인물 찾기를 시도했다.

저자는 가상 인터뷰라는 형식을 빌려 그들의 치열한 삶에 접근한다. 인터뷰에 나선 인물은 진시황을 비롯해 클레오파트라, 조조, 측천무후, 장보고, 공예, 정도전, 허균, 광해군, 카사노바, 나폴레옹, 명성황후, 이토 히로부미까지 총 13명.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을 기본으로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인 인물들까지 아우르고 있다.

저자는 이를 통해 독재자, 역적, 요부 등 극단적 평가를 받고 있는 세계사 인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명하고 그들의 감추어졌던 진실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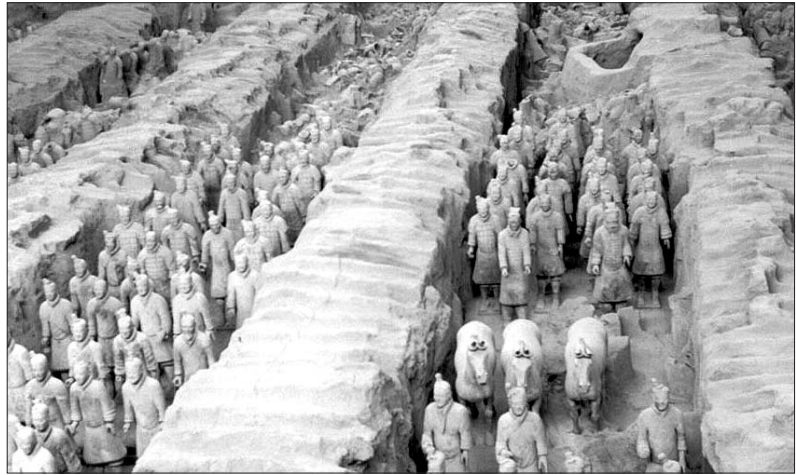
'정실'이라고는 하기는 그렇지만 흥미로운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정복자의 대명사이자 전장의 최고 지략가로 알려진 나폴레옹이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했다는 사실이나 권모술수와 잔혹함의 대명사로 악명 높은 조조가 실은 술한 전장을 빼지 않고 누웠던 용감이자 용인술의 대가이며 인문, 자연, 기계공학 등 풍부한 교양을 자랑하

는 '르네상스적인 인문주의자'였다는 주장은 새롭다.

이외에도 미모로 이집트와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을 홀리고 섹트에 가득 찬 여자로 기록된 클레오파트라가 사실은 이집트의 독립과 번영의 꿈을 놓치지 않았던, 교양과 재능이 넘치는 여왕이었다는 것. 중국사 유일의 여황제 측천무후 역시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자식을 죽인 악독한 여제 혹은 수십 명의 남자 첩을 거느린 색정의 노인으로 알려졌지만 그녀가 황제로 있을 당시는 민중에게는 최고로 평화로운 시대였고, 중국의 대외 관계가 편안하기 그지없었다는 점. 무자비한 애꾸눈의 폭군으로 알려진 공예가 사실은 탁월한 장수이자 미복사상으로 민중해방을 꿈꾼 이상주의자였다는 것 등도 눈길을 끈다.

'홍길동전'의 저자이자 허난설헌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허균이 조선사 최대 복직과 파직을 거듭한 이단이자 조선왕조의 기피인물 제1호였다는 것. 희대의 바람둥이라는 카사노바는



진시황릉의 병마용형. 병마용의 존재는 진시황의 권력을 상징한다.

7개국 언어에 능통하고 온갖 재능을 갖춘 팔방미인형의 몸가이었다는 것. 한일병합의 장본인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헌법을 기초하고 총리만 네 차례나 지낸 거물이자, 군부 강경파에 맞서 합리적 정책을 고수한 인물이었다는 것 등은 다소 과격적인 이야기들이다.

또한 역사 혁명으로 조선을 개국한 정도전에게는 일부 역사가들에 의해

반역자로 평을 받는 게 어쩔지, 공예에 갖춘 팔방미인형의 몸가이었다는 것. 한일병합의 장본인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헌법을 기초하고 총리만 네 차례나 지낸 거물이자, 군부 강경파에 맞서 합리적 정책을 고수한 인물이었다는 것 등은 다소 과격적인 이야기들이다.

또한 역사 혁명으로 조선을 개국한 정도전에게는 일부 역사가들에 의해

자연·인간 교감 아름다운 세상

못난 사과의 꿈

정호승 지음



'사람하다가 죽어버려라', '외로워니까 사람이다' 등의 시집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어온 정호승 시인이 아이들을 위한 새 동화집 '못난 사과의 꿈'을 펴냈다.

정 시인은 '바다로 날아간 까치', '할아리', '모닥불', '연인' 등 동화집과 지난 8월 출간한 동시집 '참새'를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 메시지를 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번 동화집에서도 그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준다.

표제작인 '못난 사과의 꿈'을 비롯해 '아기 산수유나무', '시각 장애인 안내견 바둑이', '서로 사랑하는 꽃' 등 이번 동화집에 실린 13편의 동화는 자연과 가족, 이웃, 사랑,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못난 사과의 꿈'이나 '시각장애인 안내견 바둑이' 같은 작품은 짧고 단순한 이야기 속에 부모와 자식, 인간과 동물의 은근하면서도 진한 사랑을 담고 있어 읽고 나면 가슴 한구석이 훈훈해지는 작품들이다.

썩은 사과를 주인공 화자로 등장시킨 '못난 사과의 꿈'은 아파와 사별한 한 소녀와 엄마가 제사상에 올릴 사과를 사간 뒤 서로에게 맛있는 사과를 먹이기 위해 사과가 썩을 때까지 남겨두는 모습을 그렸다.

시처럼 운율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문장은 두고두고 음미해볼 만한 명문들이다. 〈처음주니어·9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친미·반미 넘어선 통섭적 미국사

미국사 산책

강준만 지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줄기로 엮어내는 이른바 '통섭형 글쓰기'로 이름난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미국사 개설서 '미국사 산책' (총 17권)을 최근 완간했다.

지난해 3월 첫 5권을 펴낸 뒤 불과 8개월여 만에 시리즈를 끝낸 것이니 그의 솜씨는 글쓰기에 감복할만하다.

이번에 나온 13~17권은 1992년 LA흑인폭동에서 오바마 행정부까지 현대 미국사를 다뤘다.

이로써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부터 현재에 이르는 237년의 미국 역사의 모든 장면을 담았다.

강 교수 이번 편들 또 전작과 같이 '친미 대 반미'라는 이분법적 미국사에서 벗어나 미국의 명암을 동시에 보기 위한 시도를 했다고 말한다.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자료를 이용해 정치사는 물론 사회·일상사를 아우르며 거시적·미시적으로 파악하면서도 도덕적 재단보다 사실적 접근을 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압축성장, 평등주의, 물질주의, 각계각진, 승자독식 등 근대화 이후 생겨난 현상들에서 한국과 미국이 닮아있다고 본 강 교수는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알기 위해, 또 미국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세계를 알기 위해 '미국' 그 자체를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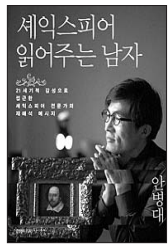
〈인물과사상사·각권 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셰익스피어 비극은 또 다른 희망

셰익스피어 읽어주는 남자

안병대 지음



30년 넘게 셰익스피어를 연구해 온 안병대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셰익스피어 전문가다. 한양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셰익스피어를 연구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영국 셰익스피어 연구소와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캠퍼스에서 연구 경력을 쌓았다. 이외에도 셰익스피어를 전공하는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원어 연구 극단 'Korea Shakespear's Kids'의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다.

항상 심장 가까이 셰익스피어를 담고 살아온 안 교수가 쓴 '셰익스피어 읽어주는 남자'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중심으로 그가 던진 인생의 화두를 점검해 보고, 인생의 본질에 대한 뜨거운 질문과 성찰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21세기 스타일의 '셰익스피어 여행 가이드'이다.

저자는 셰익스피어 비극을 한마디로 '삶, 죽음, 인간, 우주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명상록'이라고 표현한다.

셰익스피어 비극을 주제별로 담은 이번 책을 통해 저자는 "셰익스피어 비극은 또 다른 이름의 희망이다", "셰익스피어 비극은 슬픔이 있되 우울하지 않다"는 메시지들을 따뜻하고 섬세한 목소리로 전한다.

단언컨대, '인간이 존재하고 무대가 존재하는 한 셰익스피어는 불멸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책이다.

〈명진출판·1만7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애했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KUKJE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